

스포츠계 인사들 정치참여 활발

김성한·김용룡·이만기 등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대선 캠프 합류 후보들 선거 유세 도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스포츠인들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김성한, 김용룡, 이만기, 김운용, 이예리사 등 스포츠계 인사들은 스포츠인들은 공개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지 선언하거나 직접 대선 캠프에 합류해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1980년대 야구 스타 김성한 전 감독을 비롯해 김용룡 전 감독, 차여러더 박기량 등이 적극적으로 문 후보의 유세를 돕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체육인 2000여명은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체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시대'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방향이 체육의 가치 및 사회적 기능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은 모두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수영 아시안게임 5관왕 최윤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비롯해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오경 서울시청 감독, '볼주먹 문성길 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 농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박찬숙 전 국가대표 감독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김연아와 박태환 등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라인에 찍혀 적잖은 피해와 협박을 받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충장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장에서 해태 티셔츠를 입고 김용룡, 김성한 전 감독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았고, 손연재는 느닷없는 늘품체조 불평으로 각종 특혜 의혹으로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체육의 숭고한 가치가 구현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하장사 출신 이만기 인제대 교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돕고 있다. 이만기는 현재 자유한국당 김해를 담당위원장

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홍 후보의 창원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장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그는 캠프 상임고문으로 안 후보를 돕고 있다. 또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김광선 씨, 복싱 세계챔피언 장정구 씨,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던

전 복싱 세계 챔피언 홍소환씨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정치를 싫어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연방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탁구스타 출신 이예리사 전 의원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돕고 있다.

이예리사 전의원은 최순실 사태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해 대전중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카누팀 국가대표 선발

전북체육회 카누팀이 완주군 구이저수지에서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카누대회에서 국가대표 선발과 함께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경성을 맞이했다.

20일 대회에 출전한 이순자 선수는 여자부 결승(K-1 500m)에서 2분 6초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최민지 선수 역시 2위로 들어오며 나란히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전북체육회 카누팀은 5명의 선수 중 2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영광을 안게됐다.

지난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여자카누 현역최고령 선수로써 저력을 과시했던 이순자 선수는 이번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고3 때부터 무려 22년째 태극마크를 달게 됐고 우리나라 카누의 신장임을 증명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이순자선수를 비롯해 전북체육회 카누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 기쁘다"며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 꿈나무 축구대회 '성료'

전북도와 전북이동복지협회가 함께하는 보호(시설)아동들의 한바탕 큰 잔치인 '제15회 전라북도 꿈나무 축구대회'가 아동 및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대회를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대회를 대비해 선수선발까지 겸하고 있어 선수들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제15회 꿈나무 축구대회에서는 유소년부에서 전주완주가 중·고등부에서는 정읍고창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전북도와 완주군 및 도내 시설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백승권 단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동복지재단 선수 등을 격려했다. 참가 아동들에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 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올해부터 전북도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연계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풍선, 아이스크림, 축구공, 현대모터스 티셔츠 등 체험부스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기억에 남을 축제가 축구대회가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이들의 축제가 꿈나무들을 위한 대회인 만큼 더 크고 웅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메시 멀티골' 바르셀로나, 266번째 엘 클라시코 승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3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에 3-2 역전승

266번째 엘 클라시코의 승자는 FC바르셀로나였다.

바르셀로나는 24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6~2017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3라운드 레알 마드리드(레알)와 엘 클라시코 дер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리오넬 메시의 활약을 앞세워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점 3점을 추가한 바르셀로나는 승점 75(23승6무4패)를 기록, 레알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선두로 올라섰다.

단 바르셀로나가 1경기를 더 치른 상태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23승6무3패·승점 75)는 2위로 하락했다.

이날 멀티골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끈 메시는 바르셀로나 통산 500호골을 기록했다.

또 엘 클라시코 15~16번째 골을 넣으면서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14골)를 넘어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됐다.

팽팽한 승부속에서 선제골은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갔다.

레알은 전반 28분 라모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카세미루가 마무리했다.

선제골을 내준 바르셀로나는 곧바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전반 32분 라키테치의 패스를 받은 메시가 드리블로 문전을 침투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레알은 전반 39분 베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반 41분과 전반 종료 직전 메시가 찬스를 잡았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28분 라키테치가 앞서나가는 골을 터뜨렸다.

실점 이후 레알은 라모스가 반칙으로 인해 퇴장당하며 위기에 빠졌다.

레알은 후반 36분 하메스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고 동점골이 터졌다.

하메스는 마르셀루의 크로스를 눈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2-2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레알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메시는 후반 추가시간 일바가 패스한 볼을 받아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만들었다.

/김민근기자



전주시청·전북도청 탁구동호회 친선교류전

전주시청 탁구동호회(회장 최규중)와 전라북도청 탁구동호회(회장 임영환)는 최근 전북도청 내 공연장 지하탁구장에서 친선 탁구교류전을 개최하여 그 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전북도청 탁구동호회 주관으로 열린 친선교류전은 시·도 산하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되었고 직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서로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최규중 전주시청 탁구동호회장은 "행사를 먼저 주관해 준 전라북도청 탁구동호회에 감사드리며, 승패를 떠나 직원들 간의 끈끈한 친목을 다지고 각종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건전한 동호회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음 달에는 전주시청 탁구동호회에서 주관하여 건전한 친선 교류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